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8096.93	↑ 코스닥	967.81
	(+612.52)		(+56.42)
↓ 금리 (연율)	3.856	↓ 환율 (원/달러)	1519.25
	(-0.084)		(-15.75)



반도체 끌고 조선 밀고... 韓 경제 '飛上' 李, G7 참석차 유럽 순방길 올라

창간기획 리부트 코리아 K산업의 화려한 부활

한국 산업이 전방위 재도약기에 들어섰다.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으로 질주하는 가운데 조선과 방산이 뒤를 받치고, 자동차는 관세 역풍 속에서도 글로벌 점유율을 지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주력 산업이 동시에 살아나면서 성장률과 수출이 주요국 최상위권에 올라섰다. 미국·유럽과의 산업 협력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며 'IT·제조 강국'의 위상을 다시 쓰고 있다.

1분기 GDP 1.8% 급증
수출 2199억 달러 38% ↑
車 글로벌 점유율 상승 등
'IT·제조 강국' 위상 높여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증가해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이 5.9% 늘고 설비투자가 6.6%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교역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9.2% 늘어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명목 GDP 성장률도 10.5%로 1976년 1분기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관련기사 3면>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

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2199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7.8% 늘어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785억달러로 139% 급증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한국은 이 기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수출 5위에 올랐다.

성장의 견인치는 반도체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57조 2000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DS)부문만 53조 7000억원을 거뒀다. SK하이닉스도 고대역폭메모리(HBM) 호조로 분기 최대 이익을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1조 5000억달러를 넘어 글로벌 톱10에 올랐다. 증권가는 내년 영업이익이 엔비디어를 제친 세계 1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KB증권 488조원)까지 내놓고 있다. 여기에 조선과 방산이 뒤를 받



李 대통령 부부, 유럽행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유럽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 경기 성남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한다. 한화오션은 1분기 영업이익 4411억원으로 2023년 출범 이후 분기 최대 실적을 냈으며 HD현대도 2017년 지주사 전환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ngja_lee@metroseoul.co.kr metro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 예정
美 트럼프 만남 여부 관심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유럽 방문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벨기에·유럽연합(EU)·이탈리아·교황청을 방문하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또 한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세번째 만남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오전 9시 20분쯤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통해 첫 방문지인 벨기에 브뤼셀로 향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번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G7 플러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순방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9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해 동포들과 만난 간담회를 가졌다. 10일 오전에는 드웨이브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오후에는 필립 벨기에 국왕과 면담을 갖는 등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



메트로경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 글로벌 먹거리 된 'K-푸드'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7일(수)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들며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은 K-푸드는 전 세계 유수의 마켓과 식탁을 점령하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가 매일 즐기는 '세계인의 먹거리'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대표 식품 기업들의 발자취와 성공 전략을 조망하는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번 포럼은 풀무원, 대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마주한 다음 단계의 도약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창적인 제품 개발 스토리부터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화에 성공한 비결까지, K-푸드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묻는 다채로운 강연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K-푸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성을 진단하고,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 깊은 교류의 장이 될 계획입니다.

- 주 제 : K-food, 세계인의 먹거리
- 일 시 :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푸디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 참가비 : 사전 등록시 무료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선거 끝, 커피부터 치킨까지 '외식물가 줄인상'

고환율·고유가 여파
물류·원재료비 부담 누적
더네티·롯데리아 등 인상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가 끝나가 무섭게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고환율과 중동 전쟁 장기화, 고유가 여파로 누적된 물류비와 원재료비 부담을 분사가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면서 선거 직후 커피·피자·버거 등 서민 물가와 직결된 메뉴들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양상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성비 비를 내세우던 저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메가MGC커피는 오는 19일부터 '할메가커피' 제품군 3종의 가격을 각각 200원씩 올린다. 이에 따라 할메가커피는

2100원에서 2300원, 왕할메가커피는 3200원에서 3400원, 할메가미숫커피는 2900원에서 3100원으로 인상된다. 사측은 핵심 원료인 동결건조(FD) 커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네티도 지난달 29일부터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주요 음료 가격을 100~500원 인상했다. 바닐라라떼(L)는 3500원에서 3700원으로, 이천살라떼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다.

매장 음료뿐만 아니라 시중 판매용 제품 가격도 뛰었다. 이디야 커피는 지난 6일부터 스틱 커피와 커피 믹스 제품 가격을 4.3~15.2% 인상했으며, 커피빈 역시 이달부터 바닐라라떼 최대형 포장 스틱 커피 가격을 최대 8.1% 올렸다.

피자와 버거, 일반 외식 브랜드 들도 제반 비용 증가를 견디지 못

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

한국파프존스는 8일부터 코카콜라·스프라이트 등 음료 8종의 가격을 인상했다. 500ml 제품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5.9%), 1.25l 제품은 2300원에서 2500원으로 (8.7%) 올랐다. 단, 주요 메뉴인 피자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미노피자도 지난달 4일부터 음료 가격을 용량별로 100~200원씩 인상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도 9일부터 역전우동, 미정국수, 인생설렁탕, 제순식당, 한신포차, 돌배기집, 백스비어, 막이옴, 롤링파스타, 뽕보이피자, 새마을식당 등 11개 외식 브랜드의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약 11% 인상했다.

버거 업계는 연초부터 가격 인상 릴레이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 맥도날드가 지난 2월 빅맥 등 35

개 메뉴 가격을 100~400원 올린 것을 시작으로, 버거킹이 100~200원, 맘스터치가 43개 품목 가격을 평균 2.8% 인상했다. 롯데리아도 지난달 28일부터 단품 버거류 22종 등의 판매 가격을 평균 2.9% 상향 조정했다.

가격 인상 대신 제품의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굽네치킨(지앤푸드)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속 수급 불안을 이유로 닭다리살 순살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기존 800g에서 700g으로 축소했다. 굽네치킨 측은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산 원료로 대체하는 대신, '국내산 닭다리살 사용'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김 총리 "참정권 민주주의의 근간...정부 모두가 경각심 가지고 대처해야" /사진 뉴시스
▲인권위 "6·25 전시남북 피해자 보상 규정 신속히 마련해야"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 11일 서울서 개최...핵 억제 및 대비태세 강화 논의
▲송영길 "차기 지도부, 대통령과 불필요한 갈등 대신 개혁 추동해야"

▲與 김남국 "6·3 지선 패인, '지도부 책임' 하나로 말하기 어려워"
▲현직 총리·후보자 국무회의 나란히...윤 "AI 대전환 적임" 韓 "어깨 무거워"